

5년간 26.3조 번 한국은행 사회기부는 0.0007% 수준

(2018~2022년)

타 국책은행 당기순이익 대비 1% 내외 기부 민주 한병도 의원 “사회공헌 확대 방안 마련을”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63,3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한국은행의 사회기부액이 같은 기간 19억7,000만원(0.007%)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2018년 3조 2,137억원, 2019년 5조3,131억원, 2020년 7조3,659억원, 2021년 7조8,638억원, 2022년 2조5,452억원 등 지난 5년간 총 263,3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는데, 동 기간 사회기부액은 총 19.7억원, 연평균 3.94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5년간 한은의 연간 사회기부액



은 적게는 3억원, 많게는 5억6,000만원 규모로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기부액 비율이 2018년 0.009%, 2019년 0.006%, 2020년 0.008%, 2021년 0.005%, 2022년 0.016%로 연평균 0.007%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달리 주요 국책은행은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 대비 1% 내외를 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은행은 3,889억원의 당기순이

익을 냈고 57억원(1.47%)을 사회기부에 집행했다.

산업은행도 4,650억원의 당기순이익에 55억원(1.18%)을 기부했고, 한은과 당기순이익 규모가 비슷했던 기업은행 역시 283억원(1.07%)을 사회에 환원했다.

한편 초라한 사회기부에 비해 한국은행 전체 예산 집행액은 2018년 6,259억원에서 2022년 8,478억원으로 4년새 2,219억원(35.5%) 증가했고, 업무추진비로는 연평균 23억4,000만원 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이나 일반 시중은행보다 사회공헌에 인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한은은 사회기부와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는 6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한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본회의에서는 새만금 예산 정부부처 반영액이 78%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쟁점 과행 책임을 전라북도로 전가하며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예산삭감을 즉시 철회하라는 ‘새만금 관련 SOC사업 예산삭감 반대 촉구 결의안’(유재구 의원 발의)을 채택했다.

한동연 부의장은 “회기 중 안전 심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와 땀을 흘리셨다”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재현 의원은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시민안전보험 확대를 촉구했고, 김순덕 의원은 익산시 공공건축물 공사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조규대 의원은 익산시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 지원을 촉구했으며, 김미선 의원은 방갈 안전 귀갓길 재점검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재구 의원은 남부권 통합형 복지관 설립으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강경숙 의원은 배부나무릇 길 가로면 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여가부장관, 잼버리 파행 책임자”

도의회, “무능·후안무치 전형” 즉각 파면 주장

전라북도의회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잼버리 관련 답변에 나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책임자로 드러났다”며 즉각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6일 김영선 대변인 이름의 성명을 통해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파행 책임의 소재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히자고 주장하더니, 국회에 출석해서는 어이없게도 새만금 부지를 문제 삼았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 부지 선정은 박근혜 정부때 이뤄졌다. 2021년 3월 부지매입이 끝났고, 기반시설도 2023년 4월 완료됐다. 그런데도 김현숙 장관은 파행의 원인을 부지 선정과 기반시설 조

성이 늦어졌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도민과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도의회는 “더욱이 김 장관은 대외기관 생대담방에서 투숙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영지를 지키려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자 도덕적 해이”라며 “새만금잼버리 파행은 예산집행, 제반 문제는 조직위원회 책임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의 책임 전가는 부도덕, 무능, 무책임한 후안무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김현숙 장관을 즉시 파면하고,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청년실업·기업관리 대책 마련을”

최형열 도의원 “대기업 등 예산지원 혜택 부여만큼 일정 비율 도민고용 의무 규정해야”



전북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은 제40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실업 및 기업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형열 의원은 “전라북도의 실업률이 지난해 2.2%에서 올해는 2분기 만에 지난 한 해 동인의 실업률을 훌쩍 넘긴 3.2%로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치로 집계되면서 인구 및 청년층의 유출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일자리에 관한 현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내 인구는 지난해 약 1만명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4월 기준 1만3천명이 감소하며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도내 청년실업률은 12.2%로 전국 평균(6.2%)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이자 최근 10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청년고용률은 6년째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시도별 증가율에서 전북(17.5%)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세종시의

(62.7%)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도내 신생기업은 10개 중 7개가 6년 안에 문을 닫고 있고 창업율은 2021년 71.0%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기업하기 좋은 전북,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장엔진에 불을 붙이겠다는 지사님의 비전과는 정반대로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런 상황임에도 전북도의 관련 부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인원을 창출하는 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의 취업자 현황에 대해 대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는 부재하며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어 정보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만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현대자동차는 수조 차 등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몇 배 이르는 예산을 전북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전라북도 기업이 혜택만 부여할 것이 아니고 채용 시 일정 비율의 도민 및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반드시 규정하며 대기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강화를 통해 도민이 더 이상 일자리로 인해 전복을 떠나지 않도록 혁신만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의회 '미래농업 정책연구회' 착수보고회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김제시 미래농업 정책개발 연구회를 통해 김제시의 미래농업 정책 개발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5일 김영자 의장을 비롯해 김승일 대표의원 등 총 8명으로 이루어진 정책연구회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 농식품융합대학장 구양규 교수 초청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승일 대표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미래 농업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 미래농업의 정책 개발과 연구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내 스마트 농업 현황 및 주요 내용, △농림부 및 전북도의 스마트 농업 정책 현황 분석, △해의 사례 분석, △김제시 농업 분야 사업 분석 등의 논의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과 김영선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방침에 반발하는 삭발을 한데 이어 6일 의회청사 1층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 예산 삭감에 분노... 삭발에 이어 단식”

김정수·영영선 도의원, 단식농성 나서

전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과 영영선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방침에 반발하는 삭발을 한데 이어 6일 의회청사 1층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78% 삭감이라

는 상상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산폭력이 자행됐다”며 “이번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삭발에 이어 단식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오후 단식투쟁 전막을 찾아 “새만금 예산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

황이 안타깝다”며 “삭발 단식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 의회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부처에서 요구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14명의 의원이 단체 삭발을 했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예산 빼먹기? 전북도·도민 명예 훼손한 것”

이덕춘 변호사, 국힘 송인석 의원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자 내년 전주를 총선 준비중인 이덕춘 변호사가 새만금잼버리 사태로 새만금 예산 빼먹기 발언을 한 국회 여당 간사인 송인석 의원(국민의힘)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덕춘 변호사는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인석 의원이 지난달 11일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사회기부자본)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송 의원은 또 ‘11조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혈세를 가져가서 잼버리 조직위 직원들이 위유성 출장을 반박하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건설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대외준비는 완전한 부실로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덕춘 변호사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새만금 예산 빼먹기 발언을 한 국회 여당 간사인 송인석 의원(국민의힘)을 고발한다고 밝혔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허위사실로 전북도와 전북도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며 “송인석 의원은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30여년 전부터 계획된 새만금 개발에 도로·항만·공항 예산을 수립해 개발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특성상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송 의원은 투자를 두고 국가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말했다”며 “여기에 ‘국민 혈세를 가져가서 잼버리 조직위 직원들이 위유성 출장을 반박하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건설을 늘리고 등의 표현을 더해 전북도를 국가의 SOC 예산을 빼먹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이 특정지역이나 지역민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오는 8일 오전 전주지검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송 의원을 고발할 예정으로 이번 고발에 함께 동참할 도민이 계시다면 고발인으로 함께 참여해 달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뉴시스

초등 졸업앨범비 지원... 공교육비 부담 경감

강동화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초등학교 졸업앨범비를 지원해 전북도내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해당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동화 의원은 “전북 도내 학생 수가 적은 시군 단위의 초등학교에서는 단가가 맞지 않고 비용부담으로 인해



교육복지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강 의원은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졸업앨범비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이다.

졸업앨범비 지원은 2024학년도 졸업하는 초등학교생부터 적용되며 1인당 7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강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교육공공성 확보에 한발 다가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9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행자위, 전북연구원서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6일 전북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원 혁신방안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새로 취임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으로부터 전북연구원 혁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재 전북연구원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자율성과 독립성인 만큼 연구원이 전라북도에 휘둘리지 않고 전북 발전을 선

도하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연구원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구원 시설 현황을 둘러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



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